

자연질서 파괴와 윤리

「자연과 환경의 적(敵)은 인간이다.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횡포는 없어져야 한다. 자연과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과학과 기술은 제한되어야 한다. 과학자나 기술자도 완전 소멸된 자연자원을 다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생각과 태도로 자연과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자연과 환경파괴에 관련하여 오랫동안 생각하고 느꼈던 나의 소신이다.



金榮振
(인하대 철학과 교수)

자연 및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필자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 중에서 이 기회에 꼭 말하고 싶은 것 몇 가지를 밝히고자 한다.

1. 자연과 환경의 적(敵)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너무나 이기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인간들이다.
2. 너무나 이기적이고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들조차도 너무나 존엄하게 취급하는 종교, 철학, 사상, 제도 등은 이제 총체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 21세기에는 아주 새로운 윤리나 사상이 필요하다.
3. 어느 기업체 회장은 기업가의

입장에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지만 자연보호주의자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세상은 좁고 할 일은 적다”.

“세상은 좁고 할 일은 적다”

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좋긴 하지만 자연과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고쳐야 한다.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다수인들의 횡포와 저질의 민주주의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5. 필자는 철학적으로 수구주의자가 아닌 보수주의자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 중에서 자유를 더 소중히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자유지상주의자(自由至上主義者)는 아니다. 언론, 예술, 사상 등의 자유가 매우 소중한 것처럼 과학기술의 연구와 창조의 자유도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자유도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자연 및 환경에 엄청난 파괴와 재난을 초래하는 과학과 기술은 타율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칸트가 말한 대로 올바른 실천이성에 입각해 자율(自律)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이다.

6. 과학과 기술은 다른 것에 비해 매우 가치중립적이며 결코 나쁜 것도, 또한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과학자나 기술자는 다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자연 질서와 환경의 파괴를 초래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는 나쁜 사람들이다.

7. 필자가 아는 한, 우리나라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우리는 생산한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생산인가? 그들은 옛날에 만들 수 없었던 비행기,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칩 등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한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각과 의식은 많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생산과 개발이란 미명하(美名下)에 자연과 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이다. 자연 자원은 고갈되었고, 환경은 오염되고, 산하가 엉망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과학자나 기술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그러나 과학자, 공학도, 기술자들은 “우리는 생산한다”라는 의식에 계속 묶여있어서는 안된다.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 것이 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8. 과학과 기술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과학자와 기술자는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소멸된 자원은 재생 못한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있는 것들을 변통하고 바꾸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며 또 어떤 사태를 올바르게 예측함으로써 재난을 막아낸다. 그러나 완전히 소비하고 파괴한 자연자원을 결코 다시 만들 수 없으며 또 완전히 멸종된 동식물 여러 종들(species)을 다시 만들 수 없다. 현재 자연자원은 자꾸 소비되어 없어지고 있고 또 동식물의 많은 종들이 매일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은 급속도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절실히 경험하면서도 과학과 기술을 맹신하는 나머지 지구와 인류의 장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나는 그들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리가 지금 어떤 극단적인 조치나 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인류와 자연의 장래는 극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기에 과학과 기술의 한계를 먼저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일단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보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취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과학과 기술이 그 순수성을 잃고 어떤 정치적 내지 경제적 변수에 의해 임의적으로 좌지우

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자연과 환경문제에 관련한 우선적으로 순수한 과학자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들의 충고를 일차적으로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9. 자유, 평등, 예술 등의 가치가 중요하며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 연구와 창조 가치, 이 모든 것들의 가치가 다 중요하다. 그러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다. 왜냐하면 자연과 환경은 모든 다른 것들의 존재 근거이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며 또한 인간중심적인 인간들은 참으로 멍청하게도 다른 가치를 더 존중해서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자연과 환경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인간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징그럽고 무시무시한 뱀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소중히 생각해서 뱀만 보면 죽이려 하는 대신 쓰다듬어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방향을 좀 바꾸어 오늘날 첨단과학과 기술의 연구 결과로 나타난 인간복제(human cloning)의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인간복제는 생물학이나 유전공학의 분야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자연자원이나 환경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질서와는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윌머트(I.

Wilmut)박사팀은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만으로 양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복제기술은 옛날의 복제기술과는 아주 다르며 혁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복제기술은 체세포만으로도 인간을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실성을 함께 보여준다.

“인간복제는 있을 수 없는 일”

필자가 볼 때, 인간복제는 한편으로 인간들에게 유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기타 여러모로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의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으며, 남녀간의 인간소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질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서를 총체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공리주의의 도덕관에 입각해 완전한 인간복제에 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택한다.

오늘날 대학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 연구기관에서는 과학기술의 자유로운 연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또 마치 신성불가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한 대로 자연과 환경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고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이나 도덕관으로 무장을 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임해야 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㉟